



맛깔스런 타이포와
재질 중심의 북디자인의 기본

북디자인어 오필민



기자는 언제부터가 책을 볼 때 앞날개에 적혀있는 디자이너 이름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서점에 나가보면 지구상에서 숨쉬는 인구만큼이나 다양한 이목구비를 지닌 책표지를 만날 수 있다. 책표지의 모양새를 요리조리 훑어보고 디자이너의 이름을 확인하면 그와 얼굴을 마주하는 친숙함이 느껴져서 일까. 북디자이너 오필민(42) 씨도 서점에서 자주 조우했던 친근한 이름이다.

“나는 다르다고 건방을 떨었죠. 그 건방은 제가 사유했던 미적 감각을 토대로 한 것 같아요.”

단행본 북디자인을 시작한 지 5년째 접어들었다는 그는 ‘건방’이라는 단어로 기자를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동안 단행본 표지만 4백 권 정도를 디자인했으니, ‘건방’ 정도의 표현은 순순히 이해하고 넘어가자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라며 꼬리를 내리는 뒷말은 구미를 당기게 했다.

대학에서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편집기획자로 일했던 그가 북디자이너로 진로를 유턴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영상 이미지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던 1990년대 초, 이 시기는 영화적 글쓰기 기법이 꿈틀대던 때다. 그도 스크린에 중독 되면서 텍스트를 이미지로 변환시키는 작업에 매료됐다고 한다. 기자가 생각했을 때는 사춘기 소녀들처럼 공책 여백에 끄적끄적 낙서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타고난 본능이 북디자이너로 살게 한 가장 큰 이유이지 않았을까. 북디자이너로 책 날개에 그의 이름을 올린 첫 책은 《보보스》(동방미디어, 2001)이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정적의 시간을 좋아하는 그는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점점 더 밀려든다고. 텍스트의 함의를 파악해야 하는 북디자이너로서의 책임감이 무럭무럭 내부에서 솟구치기 때문일까.

“간혹 실수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컨셉을 잡는 지점이 모한 책들이 있는데,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출판 편집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하죠. 예를 들면 《타샤의 집》 《타샤의 정원》 《행복한 사람 타샤 튜터》 미국판은 그림 위주의 타블로이드 판형이었어요. 예술적 그림이 아니라 소박한 내용이 담겨 있는 그림이라 판형조절부터 했죠.”

그는 ‘생각 없이 하는 말들’에는 한 치도 양보하지 않는다. 디자인을 이해

하지 않고 자기만의 잣대로 보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들에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그가 북디자인을 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상업성’이다. 책표지를 광고로 생각하는 상업성 때문에 적잖이 가슴앓이를 한다고. 새로움을 추구하면서도, 절대 오버하지 않는 디자인. 북디자이너로서 가슴에 새긴 철학이다.

“이미지가 과잉된 책 보다는 절제미가 흐르는 북디자인을 선호해요. 독자들은 아마 밋밋하게 느껴질 거예요. 성형을 한 책에서는 책이라는 고유한 맛이 사라져 안타깝더라고요. 페인팅 위주의 작업보다는 타이포와 재질 중심이 되는 작업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적절한 지점을 찾는 게 디자이너의 역량이라고 봐요.”

북디자이너로서 보람된 일은 자신이 디자인한 책을 손에 들고 가는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란다.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이 책이 어디에 놓일 책인가, 어떤 사람들이 보는 책인가, 그 사람들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상상한다.

에코리브르, 지호, 부키는 북디자인을 시작하면서 각별하게 맺어온 인연들이다. 그가 아쉬움을 느끼는 건, 각 출판사들의 스타일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라고. 그래서 “또 다른 나를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다”고 고백했나 싶다. 작업실 책상에는 수십 개의 시안들이 이런 저런 생김새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 속에 분명 또 다른 그를 만들어주는 표정들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문우**